

사회

머리채 잡힌 교권

광주서 수업 불량 훈계 중 여중생-여교사 몸싸움

교육청 "교권추락"... 학부모 "교사 말 지나쳐" 전학 거부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교권침해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를 낸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양과 여교사 B씨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양과 B교사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한 때 험악한 상황까지 치달았으며, 몸싸움은 옆 교실 등에 있던 동료교사들이 나

와 뜰어말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영상을 보는 등 수업태도가 불량했던 A양을 B교사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교사는 몇차례 상담실로 불렀으나 불응한 A양을 이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자 근처 교실로 데려갔다. B교사가 수업하던 교실에서 훈계를 받던 A양은 이를 참지 못하고 뛰어나간 뒤 이를 제지하던 교사와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훈계를 받는 태도가 불량한 데 대해 B교사가 다소 지나친 말을 했으며 이에 반발해 학생이 뛰쳐 나간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반면, B교사 가족들은 "서로 머리채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이 사건 이후 교내 선도 위원회를 소집, A양의 전학 권고와 사회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A양 부모는 당초의 전학 의사를 번복,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부모는 자신의 딸도 잘못이 크지만 지나친 표현을 한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A양의 부모가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자 1일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B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 A양에 대해

사회봉사와 심리치료를 권유하고 B교사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법상 중학교가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돼 문제 학생에 대한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인 이 문제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B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간 폭행 경위에 대한 주장들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교육청으로서는 일단 교권침해로 보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내 살해' 대학교수 30년 중형 부산지법, 국내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 대해 부산지법 1심 재판부는 30년 징역에 처했다. 재판부는 "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 대해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 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징역 25년 이상으로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운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모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22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최씨는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강씨와 결혼한 지 1년 여만인 지난 4월22일 이혼소송을 벌이던 박씨가 갑자기 실종되는 바람에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실종 50일만인 5월21일 최사체에 묶인 박씨의 시신이 을숙도에서 발견되면서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명문대학을 나와 대학교수로서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강씨는 시신유기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범행 후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포맷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으나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달미를 잡혀 결국 3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연희뉴스



고소영 '100억대 빌딩' 신축공사 관련 소송 승소

배우 고소영(39)이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0억원대 빌딩 신축 과정에서 야기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 등 2명 이 고소영과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건설사의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요청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빌딩 신축공사를 맡은 J사에 대해서는 "인정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 측에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비 등으로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연희뉴스

가식증 여성 못참고 미트서 처친 슬쩍

○가식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순간의 식욕을 참지 못하고 치킨 등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문대학 휴학생인 A(여·25)씨는 지난 30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대형마트 광산점 지하에 위치한 식품코너에서 치킨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5만원 상당의 식품품을 훔쳤다는 것.

○가식증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등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식욕이 툭다"고 진술하며 뒤늦게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심폐소생술 이렇게 1일 오후 조선대병원 하중현 홀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인공호흡법을 익히고 있다. 조선대 보건소가 주관하는 교육은 매달 한 차례 조선대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사업체로부터 수익 받은 대학 생활관장 수사

광주 모 대학 생활관장이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익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광주 한 대학 생활관장 김모씨가 이 대학 공사를 맡은 통신·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배임수재 혐의로 출국금지조치했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동생계좌 등으로 분산시켜 관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대학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김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김씨 이외에도 연루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 병원·약국 37곳 적발

광주지역 일부 병원 및 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지역 일대 마약류 취급 병원 및 약국 100여 개소에 대해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의약품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병원 28곳과 약국 9곳 등 모두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모 병원은 지난 4월11일 내원 환자 A(55·여)씨에게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진통기억부에 항정신성 약물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 3cc를 무단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월21일까지 23명의 환자에게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도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

물품 구매 사례비·명절 떡값 등 1000만원 수수 전남도교육청 前 교육장 등 4명 적발

감시원, 파면·해임 요구

전남도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전 교육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학교 물품 구매, 시설공사 등을 수의계약한 뒤 업체로부터 사례비·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시원은 "지난 6월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비리점검'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 A 전 교육장을 파면하고 B과장은 해임조치할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또 C, D계장에 대해서는 정직 징계를 주문했다.

A 전 교육장은 지난 9월 초등학교 교사로 좌천됐으며, 나머지 비위자들도 전보조치됐다.

A 전 교육장은 지난 2009년 9월 C계장이 책상 등을 납품하기로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은 사례금 2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월까지 350만원을, 업체로부터 명절 인사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았다.

A 전 교육장은 부임 초 B과장에게 "교육장이 수의계약 사례로 통상받는 30%는 너무 적다. 40%를 달라"고 주문한 뒤 수의계약 사례금 배분 비율을 직접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기세척기 구입 과정에서 '리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1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영문소장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평점 '명품'**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